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개시

특허청(청장 김종갑)에서는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특허 등 32만건이 넘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20%가 고가의 변리비용으로 인해 변리사의 조력 없이 직접 출원되고 있고, 또한 개업변리사도 서울에만 82%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75개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변리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52%(39개)에 이르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계층과 지역에 따라 변리서비스 접근도에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및 소외된 지역의 출원인이 센터의 잠재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이 배치되어 선행기술 검색, 출원서류 작성 지원 등 특허권 확보에서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명의 공익변리사는 서울에 상

주하면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2명의 공익변리사는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순회상담을 할 것이다. 향후 상담센터 운영의 성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숙련된 특허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였으며 전화(02-553-5861, 5863~5)로도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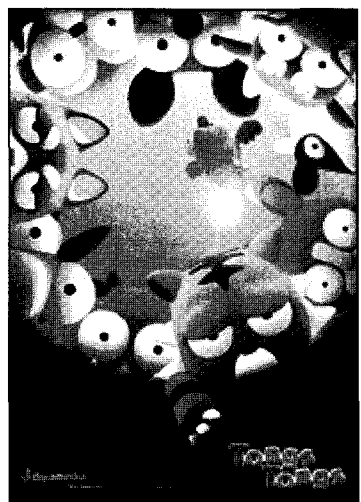
변리사 5급 특별채용 경력 요건 완화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5급 특별채용 요건을 기존의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다. 이로써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리사는 특허청 5급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무원임용령에서는 5급 특별채용 시 변리사에 대해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였으나, 변리사의 특허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특허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5급 특채 경력요건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되어 변리사의 위상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박사·기술사뿐 아니라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출신의 우수 심사관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지 띠동물을 소재로 한 상표, '눈에 띄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에는 예로부터 인간의 길흉화복과 궁합, 운수와 운명을 예점(豫占)하고 있는 12지의 띠동물을 소재로 서술적이고 감성적이며 해학적인 문구로 된 재미있는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쥐, 소, 호랑이, 토끼를 소재로 등록된 상표로는 '서울쥐 시골쥐(의류, 장신용품), 황소가 장가 가는날(간이식당업, 한식점경영업), 까치 호랑이(가방류, 상자류), 토끼와 여우(음반류, 연예업)' 등이 있고, 용, 뱀, 말, 양을 소재로 등록된 상표로는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오락 및 유희용구류), 우주인과 뱀(서화, 조각류), 당근과 말밥(가공곡물류), 양치는 소녀(조각류, 인쇄물)' 등이 있으며, 원숭이, 개, 돼지를 소재로 등록된 상표로는 '원숭이 엉덩이(과자와 빵, 간이식당업), 애완견 뭉치 돌보기(전기통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귀엽고 코믹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아케이드 대전 게임 통스통스. 최근 이처럼 12지 동물들을 소재로 한 상품들이 늘면서 상표도 증가하고 있다.

신기계기구, 인쇄물),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인쇄물, 조각류)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올해는 닭의 해(乙酉年)로서 닭을 소재로 등록된 상표를 살

표보면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치킨전문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깨고나온 닭 우나 벗은 껍질 없다(서적)' 등이 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브랜드가 상품의 구매력과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래에는 간결한 명사형 위주의 상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수요자의 감성과 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서술적인 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에 관한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쌀, 영양물질로 부가가치 입혀라!

최근 쌀의 영양과 생리기능성을 증가시켜 최근 일고 있는 웰빙(well-being) 조류에 부응하면서 상품가치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코팅 쌀에 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코팅 쌀은 현미나 백미에 영양물질을 입힌 쌀로, 다양한 유용물질을 쌀에 분사하거나 쌀을 유용물질에 침지한 후 건조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좋은 코팅 쌀은 향이나 색의 거부감이 적고 쌀의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유용물질의 부착성이 높아야 한다. 최근 쌀 시장의 개방으로 쌀값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유통시장에서 삶의 질 유지와 건강 기능성이 높은 먹거리를 찾는 웰빙 바람이 거센 가운데 쌀의 건강 기능성을 높이면서도 부가가치도 높은 쌀 가공 기술의 출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유용물질을 피복하여 부가가치와 건강기능성을 높인 코팅 쌀 및 그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1건, '99년 5건, 2000년 11건, 2001년 60건, 2002년 37건, 그리고 2003년에는 36건이 출원되어, 2000년대에 들어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향후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도정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코팅 쌀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특산물을 코팅물질로 개발하거나 이들을 쌀에 효과적으로 피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수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각종 신청료 등 수수료의 체계를 민원인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감면대상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 징수규칙을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 1일 수수료 징수규칙 전면개정이 출원·등록료 체계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잡했던 기간연장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를 일원적인 체계로 개편하고 비용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사본 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가 해당 서류의 종류별(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 정보제공 관련서류),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달리 규정된 것을 개선하였다. 개정규칙에서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권리에 관계없이 배부 수단(온라인, 서면, 모사전송(팩스))과 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연장 신청료가 그동안 매우 복

잡하게 규정된 것을 연장횟수 2회 이상부터는 2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대상임을 모르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면 해당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상표 이름에 '녹색' 바람 불고 있다

그린나라 녹차, 녹색바람 전구, 그린파워 세탁기, 그린존 화장품, 그린터치 비누 등 제품 상표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일, 특허청이 '99년부터 5년간 색깔 이름을 넣어 출원된 상표 7천2백18건을 분석한 결과 '녹색(그린)'이란 말이 들어간 경우가 2천5백38건(3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혹은 푸른색이나 블루)'이 1천5백43건(21.4%)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흰색(화이트 15.3%), 빨강(레드 10.9%), 검정(블랙 9.7%)이 뒤를 이었다. '녹색'이란 말이 들어간 상표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했다. '녹색지팡이'란 상표의 경우 광고업, 연예기획업, 인쇄출판업, 완구업, 운동기구업, 문방구 등에서, '그린빌'이란 이름은 금융업, 토목건축업, 수리수선업, 창고업 등 8개 업종에서 출원자가 몰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른 색깔 이름을 넣은 상표출원 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한 반면 '녹색'이 들어간 경우는 15~25%씩 꾸준히 늘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웰빙·친환경' 바람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허고객 콜센터 Angel-call 서비스로 권리 수호

앞으로는 출원인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출원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특허권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특허청(청장 김종갑)에서는 우편에 의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출원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출원이 권리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특허고객 콜센터'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공시송달 건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직접전화를 걸어 해당 절차를 안내하는 'Angel-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 현재까지 공시송달건 대상자 6백5명 중 2백29명(통화성공율 37.9%)에게 후속절차를 안내하여 본의 아니게 생겨날 수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특허권 획득기회 박탈 및 등록 가산료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단 한통의 전화(1544-8080)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에 개설된 '특허고객 콜 센터'는 지난 3월 20일 개설 3주년을 맞이하였고, 현재는 이용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만6천1백68건(월 평균 1만9천5백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에는 연간 45만5천4백35건(월 평균 3만7천9백53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59%의 증가가 있었다.

또한 2004년 12월 말에 실시한 콜센터 이용 실태조사에서 이용고객의 35.6%가 중소기업의 종사자이고, 35.5%가 특허법률사무소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리인의 도움 없이 특허출원을 한 중소기업이 콜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특허법률 전문가 집단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콜센터의 상담이 전문가의 상담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의 관계자는 특허상담원(3명)을 투입하여 전문가도 쉽지 않은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상표출원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특허전문가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특허고객 콜센터'에서는 개설 3주년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획득'을 목표로 특허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특허청, 현안과제 액션러닝으로 풀기로 결정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선별적 특허우선심사제 확대 등 현안과제를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통해 풀어보겠다고 지난 4월 12일 밝혔다.

액션러닝은 J.웰치(Welch) 전 GE회장이 활용한 교육기법으로 조직의 장이 제시하는 현안과제를 가장 유능한 인력을 투입해 해답을 구하는 교육기법. 특허청이 액션러닝으로 풀고자 하는 과제는 '선별적 특허우선심사제 확대, 수요자 취향에 맞는 특허통계, 전문변리사 제도, 지적권심사팀제 강화, 지식재산 정보공개 확대' 등 5가지이다.

특허청은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듀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해 교육지도를 받기로 하고, 핵심인력 25명을 8주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발령을 냈다고 전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 발명 교육' 운영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5곳(서부, 북부, 중부, 동부, 남부)에서 '여성 발명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올해로써 4년째 진행되어 온 설명회가 발명에 대한 관심 유발의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의 확대와 발명 체험의 기회 제공 및 교육 후 추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5개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발명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4일 서울특별시 서부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된 '여성 발명 교육' 개강식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과학연구원 황 옥 교육연구사와 수강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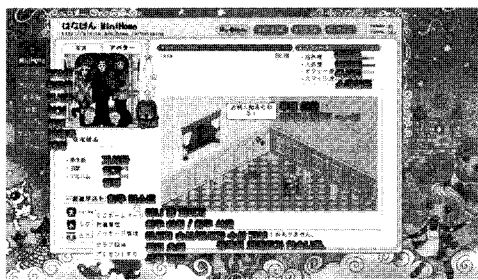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5개)가 함께 주관하는 '여성 발명 교육'은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회에 걸친 교육 기간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개요와 중요성, 생활 속의 발명 사례 및 요령, 발명 공작 실습, 발명 활동의 중요성 및 창업 아이템 안내와 함께 발명 관련 행사 등을 소개한다. 지난 4월, 서부에서 4회, 북부와 중부 여성발전센터

에서 1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발명인들을 양성하였으며, 나머지 센터에서도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추후에는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대회(가칭)'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여성 발명가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짜퉁 싸이월드' 세계 각국에서 등장

중국판과 일본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문판까지 싸이월드를 모방한 '짜퉁 싸이월드'가 세계 도처에서 등장,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싸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SK 커뮤니케이션측은 이에 대해 빠른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니홈피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특허권



일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싸이월드 복제 논란의 대상이 된 일본의 '미니홈(http://minihp.minihome.jp)' 사이트.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모델이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싸이월드가 올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 잘못하다가 해외시장 진출 초기부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센스카이닷컴(sensky.com)이라는 중국 사이트와 일본 소니 계열사 'so-net'이 운

영하는 사이트 '미니홈(http://minihp.minihome.jp)'에 이어 싸이월드를 모방한 'net tiez.com'이라는 영문 사이트가 등장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기능과 상당부분 비슷한 이 사이트는 'nBlog'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가 운영되고 있는데 디자인은 다소 다르지만, 이웃블로거 리스트,

미니룸, 일기장 등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흡사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 관계자는 '모방 사이트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길 예정'이라며 '짜퉁 사이트들이 외형은 모방했어도 실제 시스템과 그동안 쌓아왔던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는 결코 오리지널 싸이월드를 따라가지 못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년 1/4분기 특허출원, 전년 대비 21.5% 급증

'05년 1/4분기(1~3월)에 출원된 특허는 총 3만3천70건으로, '04년의 급격한 출원증가를 17.4%를 훨씬 상회하여 가파른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1년 및 '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특허출원이 '03년도에 12.1%, '04년도 17.4%가 증가한데 이어 이를 다시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금년 1~3월간의 특허출원을 내·외국인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17.4%(7천8백38건→9천2백1건)가 증가하였고, 내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23.2%(1만9천3백73건→2만3천8백69건)가 증가하여 특허출원 급증이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출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 주체는 삼성전자 등

다출원 5개 기업으로서 이들에 의한 출원은 전년동기 대비 43.8%(2천7백25건)나 증가하여 이들을 제외하여 타 내국 출원인의 출원증가를 13.5%(1,771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04년도의 급격한 출원증가율(17.4%)을 상회하는 가파른 출원증가세(21.5%)가 금년 3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선포에서 보듯 특허권의 확보야말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국내·외 경제 주체들 사이에 널리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와 같이 급격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